

공격적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과 외현적 문제

Self- & Peer-Perceived Social Acceptance of Aggressive Children and Externalizing Problems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조교수 신유림*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Shin, Yoo-Li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aggressive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social acceptance in conjunction with peer ratings of social acceptance. The subjects were 520 children in the fifth through sixth grades. Children completed questionnaires that assessed self-perceptions of social acceptance. In addition, they completed peer nominations that assessed peer victimization,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while their teachers rated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The results suggest that aggressive children's self-perceived social acceptance is inflated in relation to the ratings of their peers. For aggressive-rejected children, a highly positive self-perception was shown to be not a protective factor, but rather a defensive posture that places the children at added risk.

▲주요어(Key Words) :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 공격성(aggression), 외현적 문제(externalizing problems), 자기 지각(self-perception), 또래 지각(peer-perception)

I. 서론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발달과제이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현재의 발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반사회성, 학업 부적응 및 내적 및 외적 문제와 같은 부적응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공격성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를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적 특성으로 알려져 왔

다(Coie & Dodge, 1998). 연구자들은 또래 지명법을 활용하여 또래들로부터 선호 또는 거부되는 정도를 측정할 결과, 공격적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수용도가 낮다는 일관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해왔다(Coie et al., 1982; Lochman & Dodge, 1994; Newcomb et al., 1993; Zakriskii & Coie, 1996).

아동의 사회적 수용을 측정하는 또래 지명법은 주어진 평가 대상 아동에 대하여 다수 아동들의 지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측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또래의 지각뿐만 아니라 공격적

* 주저자 : 신유림 (E-mail : yoolim@catholic.ac.kr)

인 아동들의 경우 또래들로부터 수용 또는 거부되는 정도를 아동 자신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또래 집단이나 교사로부터 평가 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측정하고, 이를 아동의 자아 지각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자들은(Hymel et al., 1993; Patterson et al., 1990)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2)의 자아개념척도 중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의 하위척도를 활용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 Zakriski와 Coie(1996)의 연구에서는 학급의 교우들 중에서 자신을 좋아하는 또래와 반대로 자신을 싫어하는 또래의 이름을 수의 제한 없이 아동이 직접 쓰도록 하는 지명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또래 및 교사와 같은 외부 평가와는 다르게 공격적 아동들은 자신이 또래들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과잉 평가적 지각의 양상을 보이며(Hymel, et al., 1993; Patterson et al., 1990), 비공격적인 아동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자아지각의 사회적 수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akriski & Coie, 1996). 또한 이러한 공격적 아동의 과잉 평가적인 자아 지각 성향은 사회적 능력뿐만 아니라 행동 및 학업 능력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Lochman & Dodge, 1994).

공격적인 아동의 과대 평가적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적인데 비하여, 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 첫째, 공격적인 아동의 사회인지적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결핍으로 보는 견해로, 공격적인 아동은 자아 체계(self-system)을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아를 방어하는 성향(ego-defensiveness)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또래들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를 부인하고 자신을 과잉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Hughes et al., 1997).

반면에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또래 거부는 특정 아동에 대한 또래 집단의 정의적인 평가를 의미하므로, 공격적인 아동이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또래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Schuster, 1999). 공격적인 아동으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또래들은 사회적 배척(social exclusion)과 같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행위를 공격적인 아동에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Hymel et al., 1993), 실제로 공격적인 거부아동과 비공격적인 거부 아동을 비교해보았을 때, 두 집단 사이에 또래 거부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공격적인 거부 아동들의 경우 또래들로부터의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ochman & Dodge, 1994). 더불어 공격적인 아동들은 또래 집단 내에서는 인기도가 낮지만, 자신과 유사한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일부 아동들

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Cairns et al., 1988).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에 소속되어 사회적 지원을 받는 공격적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회적 수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격적인 성향의 아동들이 보이는 과대 평가적 자아 지각에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이러한 성향이 발달적으로 적응적인 보호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공격성과 관련된 외현적인 문제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 요인인지에 대한 것이다. 공격적인 아동의 자아에 대한 과대평가가 보호적 회피 성향(protective avoidance)을 나타낸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아동이 자신의 공격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동기를 저하하는 요인일 수 있으므로(Patterson et al., 1990), 문제행동을 더욱 약화시키는 위험 요소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Bierman과 Wargo(1995)의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공격적인 거부 집단의 아동들은 2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hes 등(1997)의 연구에서는 공격적인 아동의 또래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지각 정도가 30개월 이후의 공격적 수준에서의 증가를 예언해주었다. 또한 또래지각과 다르게 자신의 사회적 수용을 과대평가하는 공격적인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더욱 심각한 외현적 문제 행동을 보였으며 과잉행동증과 부주의적 성향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iener & Milich, 1997).

반면에 일부 연구자들은 공격적 아동의 과대 평가적 지각이 적어도 공격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적응 문제에 대한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자아 지각은 현실적인 정확성과는 관계없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Cairns et al., 1988), 아동의 자기 보고법에 의해 측정된 또래 수용은 또래 지명법에 의해 측정된 수용보다 아동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예언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stner et al., 1999). 또한 아동의 또래 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은 아동의 우울, 불안 및 외로움과 같은 내적인 문제와는 관련성이 없었으며 행복감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Baumeister et al., 2003). Sanstrom과 Coie(1999)는 4학년 초에 측정된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지각정도에 따라 아동들을 부정적 및 긍정적인 집단으로 구분하고 4학년 말에 두 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긍정적인 집단의 아동들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보고하며, 긍정적인 자아 지각이 아동의 또래 관계의 경험을 바람직하게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격적 아동의 과잉 평가적 자아 지각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인데 비하

여, 이러한 성향이 공격적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들을 보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아동의 자기과대평가의 적응적 가치를 살펴본 신혜은과 Bjorklund(2005)의 연구가 있으나 공격적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사회적 측정법(sociometric)을 사용하여 또래가 평가한 사회적 수용 및 거부를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눈에 띄고 우세한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의 개념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공격성의 관련성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도금혜 등, 2005)와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에 따른 공격성과 자아 존중감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도금혜 등, 2006) 등이 진행되어져왔으나, 사회적 수용에 대한 공격적 아동의 자아 지각 측면을 포함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격적 아동들을 선별하여 이 아동들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 사이에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공격적 아동이 직접적으로 또래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를 일반 아동집단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공격적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이 공격성과 관련된 외현적인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공격적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지각과 또래 지각 사회적 수용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공격적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은 일치하는가?
- <연구문제 2> 공격적 아동과 일반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공격적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은 외현적 문제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공격적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 사회적 수용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천시에 위치한 4개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표집된 5, 6학년 아동 520명이다. 학년별 연구 대상의 수는 5학년 220명이었으며, 6학년은 300명이다. 대상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자 아동이 268명(51.5%)이며 여자 아동이 252명(48.5%)이었다. 학급별 아동수는 평균 40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을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되면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며,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또래에 대하여서도 신뢰롭게 평가할 수 있는 인지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수용에 대한 또래 지각

또래 집단으로부터 아동이 수용되는 정도는 Schwartz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지명법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학급의 아동들에게 학급의 명단을 배부해준 다음 내가 좋아하는 아동 3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각 아동이 학급의 아동들로부터 받은 긍정적 지명 빈도를 합산하였다. 이 빈도를 학급별 평균 긍정적 지명 빈도를 기준으로 Z점수로 변환하여 각 아동들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또래 지각 점수를 계산하였다.

2) 또래 괴롭힘의 피해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wartz 등(2002)이 사용한 Peer Nomination Index(PNI)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또래 괴롭힘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다른 아이에게 밀리거나 맞는 사람). 또래 지명법을 실시하기 전에 아동들에게 학급 아동들의 이름과 번호가 있는 명단을 배부해주고, 각 문항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3명의 아동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괴롭힘 피해 점수는 4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학급의 또래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계산하고, 이 점수를 각 학급별로 Z점수로 변환하였다. 또래 괴롭힘에 대한 신뢰도를 내적 일치도로 계산한 결과 .87로 나타났다.

3)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Schwartz 등(2002)이 사용한 Peer Nomination Index(PNI)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관계적 및 신체적 공격성을 포함한 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예: 다른 아이를 밀거나 때리는 사람). 각 문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적합한 아동을 학급에서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각 아동별로 각 문항에 대한 지명의 빈도를 합산하고, 이 빈도를 각 학급별 Z점수로 환산하여 아동의 공격성 점수를 계산하였다. 공격적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1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지각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2)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여섯 가지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자아 지각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예: 어떤 아이들은 반에서 인기가 많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문항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과 비슷한 정도를 '정말 나와 비슷하다'(4점), '약간 비슷하다'(3점), '약간 비슷하지 않다'(2점), '전혀 비슷하지 않다'(1점)로 측정한다. 이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다면 아동 자신이 또래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여러 연구들에서도(Hymel et al., 1993; Patterson et al., 1990; Zakrski & Coie, 1996)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적 수용에 대한 아동의 자아 지각을 측정하였다. 자아 지각 척도의 Cronbach's α 는 .78로 나타났다.

5) 외현적 문제행동

아동의 외현적 문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교사보고용 외현적 문제행동척도인 Achenbach(1991)의 Teacher Report Form(TRF)의 하위 척도인 외현적 문제행동 척도(externalizing problem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 2점(보통이다), 3점(항상 그렇다)의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적 문제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외현적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 .82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t-test를 사용하여 공격 집단과 일반집단 아동들의 주요 변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Zakrski & Coie, 1996; Hymel et al., 1993) 사회적 수용도의 자아 지각 점수에서 또래 지각 점수를 뺀 점수로 자아-또래 지각의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연구문제 2를 분석

하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여 공격적 아동집단과 일반 아동집단 간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3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외현적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수용도의 자아지각 및 또래 지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 및 상호작용영향을 분석하였다.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 수집 시기는 12월인 2학기 말로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선정된 학급별 아동의 명단을 받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학을 전공한 훈련된 연구보조원들이 각 학급을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에 대한 설명 후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완성하고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각 학급의 담임교사들은 학급 아동들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 대상 아동들 중 공격적 아동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Zakrski & Coie, 1996; Hymel et al., 1993)에서 적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격성 Z점수가 상위 33% 이상인 아동들을 공격적인 아동의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비교집단은 공격성 Z점수가 하위 33% 이하인 아동들을 일반아동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전체 아동들 중 171명의 아동이 공격적 아동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아동들의 성별을 보면 남아는 121명(70.8%)이고, 여아는 50명(29.2%)으로 구성되었다. 비교 집단인 일반 아동들은 171명으로 남아는 71명(41.5%)이고 여아는 100명(58.5%)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 분석에 앞서 공격적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공격성은 또래 평가 사회적 선호도($r=-.423, p<.001$)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또래 괴롭힘($r=.196, p<.05$) 및 외현적 문제($r=.519, p<.0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공격적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선호도 정도가 낮았으며 또래 괴롭힘의 피해와 외현적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았다. 사회적 수용에 대한 또래와 자아 지각 사이에는 낮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74, p<.05$). 또래 괴롭힘은 또래지각($r=-.468, p<.001$)과 자아지각($r=-.187, p<.01$)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외현적 문제행동 점수는 또래 괴롭힘과는 정

<표 1> 연구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N=1711

연구 변인	1	2	3	4	5
1. 공격성					
2. 또래 괴롭힘	.196*				
3. 또래지각 사회적 수용	-.423***	-.468***			
4. 자아지각 사회적 수용	.037	-.187*	.174*		
5. 외현적 문제행동	.519***	.188*	-.287***	-.087	
6. 아동의 성 ^a	-.229**	.005	-.073	-.049	-.232**

a. 남아=1, 여아=2

***p<.001, **p<.01, *p<.05

<표 2> 공격적 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

변인	집단	공격적 집단(N=171)		일반 집단(N=171)		t
		M (SD)	M (SD)	M (SD)	M (SD)	
1. 또래지각 사회적 수용 ^a		-477(1.918)	.057(1.255)			-5.333***
2. 자아지각 사회적 수용 ^a		-.099(1.105)	.050(.951)			-1.331
3. 공격성 ^a		.973(1.220)	-.628(.103)			17.095***
4. 외현적 문제행동 ^b		1.375(11.139)	1.072(4.849)			9.139***

(a=Z점수 b=3점 척도)

***p<.001, *p<.05

<표 3> 공격적 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

변인	집단	공격적 집단(N=171)		일반 집단(N=171)		t
		M (SD)	M (SD)	M (SD)	M (SD)	
또래 괴롭힘 피해(Z 점수)		.161(1.041)	-.090(.842)			8.482*

*p<.05

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r=.188, p<.05$), 또래 지각 사회적 수용과는 부적의 관련성이 있었으나($r=-.287, p<.001$), 자아 지각 사회적 수용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087, ns$). 즉 외현적 문제 행동의 정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또래 괴롭힘의 정도가 높으며, 이러한 아동들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되는 경향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은 공격성($r=-.229, p<.01$) 및 외현적 문제행동($r=-.232, p<.01$)과 부적의 관련성이 있었으며, 남아일수록 공격성과 외현적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t-test를 사용하여 연구변인에서 공격적 아동 집단과 일반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 아동과 비교해 볼 때 공격적

집단의 아동은 또래 지각 사회적 수용도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나($t=-5.333, p<.001$), 자아 지각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1.331, ns$). 공격적 아동은 공격성($t=17.095, p<.001$) 및 외현적 문제행동($t=9.139, p<.001$)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 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수용도의 자아-또래 지각 일치도는 선행연구(Zakriski & Coie, 1996; Hymel et al., 1993)에서 사용한 방법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사회적 수용도의 자아와 또래 지각 점수를 각각 Z점수로 변환한 후 자아지각 평균점수에서 또래 지각 평균점수를 뺀 값으로 일치도 정도를 계산하였다. 이 값이 0에 근접한 경우에는 자아-또래 평가 일치도의 정도가 높

<표 4> 공격적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 사회적 수용의 회귀분석

N=171

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β	β
아동의 성		-.232**	-.256***	-.254***
또래지각 사회적 수용			-.298***	-.285***
자기지각 사회적 수용			-.047	.101
또래 x 자기지각 사회적 수용				.231**
ΔR^2		.054**	.095***	.050**
R^2		.054	.149	.199
F		9.645**	9.758***	10.292***

p<.01, *p<.001

<표 5> 공격적 아동의 또래지각 사회적 수용도 수준에 따른 외현적 문제와 자기지각 사회적 수용도의 관계

집 단	회귀계수	외현화문제행동과 자기지각 사회적 수용도
상집단(N=111)		$\beta=.123$
하집단(N=60)		$\beta=.301**$

**p<.01

음을 의미하며, 정적인 값은 사회적 수용에 대한 과잉평가를, 반대로 부적인 값은 과소평가를 나타낸다. 두 집단의 자아-또래 일치도를 계산해본 결과 공격적 집단은 .513으로 또래 지각에 비해서 자기지각의 수준이 더 높은 과잉지각의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일반 집단은 -.007로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와 또래 평가 정도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공격적 아동과 일반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를 t-test를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격적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또래들로부터 받는 괴롭힘 피해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 = 8.482, p<.05$).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외현적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아동의 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또래 및 자기지각 사회적 수용을, 공격적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지각이 외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또래 지각 사회적 수용도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3단계에서는 또래와 자기지각 사회적 수용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다. <표 1>에서 제시된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174 이하였으며, VIF는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아동의 성은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종속변인을 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32, p<.01$). 2단계로 투입된 또래지각 사회적 수용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beta = -.298, p<.001$), 종속변인을 추가로 9.5%를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 투입된 자기 지각과 또래 지각 사회적 수용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었으며($\beta = .231, p<.01$), 추가로 종속변인을 5.0%를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현적 문제행동과 자기지각 사회적 수용의 관계가 또래지각 사회적 수용도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또래지각 사회적 수용의 평균을 중심으로 상집단(N=111)과 하집단(N=60)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지각 사회적 수용도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각 집단별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또래 수용도가 평균 이하 집단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수용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현적 행동문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01, p<.01$). 즉 공격적이며 거부 정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 자신의 사회적 수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외현적 문제행동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평균 이상인 집단의 경우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수용과 외현적 문제행동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공격적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 사이의 일치 정도를 알아보고, 일반 집단과 비교하여 공격적 아동 집단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를 비교해보고 또한 공격적 아동의 자아 및 또래지각의 사회적 수용도가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아동과 공격적인 아동의 사회적 수용도에 대한 자아와 또래지각의 일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일반 아동의 경우 일치 정도가 높았으나 공격적인 아동의 경우에는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인 아동들은 또래집단의 평가와 비교해 볼 때 긍정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수용을 지각하는 과대평가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선행연구결과(Hymel et al., 1993; Patterson et al., 1990; Zakriski & Coie, 1996)들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또래 측정법으로 또래 괴롭힘의 피해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 집단에 비해 공격적인 아동들은 피해 정도가 높았다. 이를 연구문제 1의 결과와 함께 해석해보면, 공격적인 아동들의 경우 또래들로부터 직접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또래들로부터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격적 아동의 자기 보호적 회피성향으로 인하여, 자아와 관련된 상황에서 단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인 왜곡을 보인다는 Dodge와 Somberg(1987) 및 Hughes 등(1997)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격적인 아동들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와 인지적인 평가를 분리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Main 등(1985)의 견해에 기초해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격적인 아동들은 또래 괴롭힘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수반되는 경험에 대하여 이를 대응하는 전략으로 정서적인 경험을 분리하여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를 부인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공격적인 성향의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부인하고 외현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보고하려는 경향에서도 알 수 있다(Panak & Garber, 1992). 또한 공격적인 아동은 또래들로부터의 거부로 인한 대인 관계의 결핍에서 야기될 수 있는 외로움에 대하여 자기보고의 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Asher et al., 1990)에서도 나타난다. 애착 발달과 관련지어 공격적 아동의 이러한 성향을 해석하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공격적인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부적절한 양육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

성이 많으며(Patterson et al., 1992), 이러한 아동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위장하고 자신의 불안전함을 거부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이상적인(idealized) 견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Cassidy, 1988).

셋째, 공격적 아동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및 또래 지각이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적 아동에 대한 또래들의 사회적 수용도가 높을수록 외현적 문제행동의 정도가 낮았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관적인 결과이다(Coie et al., 1982; Lochman & Dodge, 1994; Newcomb et al., 1993; Zakriski & Coie, 1996). 또한 또래와 자아 지각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또래로부터 거절되는 정도가 높은 아동들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외현적 문제 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공격적 아동의 긍정적이나 비현실적인 자아 지각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Bierman & Wargo, 1995; Diener & Milish, 1997; Hughes, Cavell & Prasad-Gaur, 2001)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격적 아동들의 또래들로부터 받는 거부적인 피드백을 배제하려는 인지적인 경향은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적 동기를 방해하게 함으로서 외현적 문제행동이 지속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격적 아동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Jefferson 등(1994)의 연구에 의하면 치료 대상인 공격적 아동들 중 치료 초기에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정도를 가장 높게 지각한 아동들의 경우 치료 프로그램 종료 후 효과가 가장 저조하였다. Bierman과 Wargo(1995)의 종단적 연구에서 공격적 거부 아동과 비공격적인 거부 아동을 2년 후에 비교해본 결과, 공격적인 거부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방어적 회피 성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또래들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적 아동의 과잉 평가적 경향은 자신의 행동과 이에 대한 또래들의 반응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방해하게 하므로(Dodge & Somberg, 1987), 공격적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또래들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또래들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과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됨으로, 공격적 아동들의 외현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아동의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져 왔으나, 이러한 기존의 견해와 달리 긍정적인 자아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규명한 연구결과들 역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Baumeister 등(2003)는 높은 자아 존중감이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가정은 너무 단순화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외부 평가자의 정보와 합리적으로 일치되는 경우에만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Baumeister 등(1996)은 긍정적인 자아 체계(self-system)가 폭력 및 공격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긍정적인 자아 지각과 이와는 상반되는 긍정적인 자아 지각을 저하시키는 외부 평가가 결합될 때 공격성이 발생되며, 대인 관계맥락에서 이러한 자아를 손상시키는 정보 제공자에게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기초해 볼 때 공격적 아동의 비현실적인 자아 지각은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도록 하여 또래 집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거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은 자아와 관련된 사회적 거부의 단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이러한 아동들의 방어적이며 자기보호적인 성향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공격적인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 지각은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자의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발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자아 지각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공격적인 아동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해보면 Lochman(1992)은 일반 아동과 다르게 공격적인 아동의 경우, 자아 지각의 긍정적인 정도의 감소가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격적 아동에게 현실적이며 왜곡되지 않은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도록 하여 자아와 또래 지각 사이의 일치성 정도가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단적인 연구 설계를 통하여 공격적인 아동의 과대평가적인 자아 지각이 아동의 외현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방법에 기초하여 자기 보고법과 또래 측정법을 사용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야기 말하기 과제와 같은 투사적인 방법을 적용한다면 공격적 아동의 사회인지적 특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인 특성을 지닌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위축적인 아동의 자아지각과 비교해보는 연구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위축적인 성향의 아동은 공격적 아동과는 다르게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두 집단을 비교해보는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자아 지각적 특성이 사회정서발

달에 미치는 기제에 대하여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10월 16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1월 05일

【참 고 문 헌】

- 신혜은 · Bjorklund, D. F.(2005). 아동의 자기과대평가의 적응적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 35-49.
- 도금혜 · 최보가 · 이지민(2005). 청소년의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 57-67.
- _____ (2006).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에 따른 공격성과 자아 존중감. *대한가정학회지*, 44, 1-11.
- Achenbach, T. M.(1991).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 /4-18, YSR, TRF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sher, R. S., Parkhurst, J. T., Hymel, S. & Williams, G. A. (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 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1-44.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ierman, K. L. & Wargo, J. B.(1995). Predicting the longitudinal course associated with aggressive-rejected, aggressive nonrejected, and rejected statu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669-682.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Gest, S. D. & Garipey, J. L.(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24, 815-823.
- Cassidy, J.(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o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Coie, J. D. & Dodge, K. A.(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Eds.), W. Damon(Series

-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Coie, J. D., Dodge, K. A. & Coppetelli, H.(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Diener, M. B. & Milich, R.(1997). Effects of positive feedback on the social interaction of boys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 256-265.
- Dodge, K. A. & Somberg, D. R.(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s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58, 213-224.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ughes, J. N., Cavell, T. A. & Grossman, P. B.(1997). A positive view of self: Risk or protection for aggressive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75-94.
- Hughes, J. N., Cavell, T. A. & Prasad-Gaur, A.(2001). A positive view of peer acceptance in aggressive youth risk for future peer accepta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9, 239-252.
- Hymel, S., Bowker, A. & Woody, E.(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 879-896.
- Jefferson, C., Knight, L. & Hughes, J.(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ponsiveness to school-based intervention for aggression*. Paper presented at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Los Angeles, CA.
- Kristner, J., Balthazor, M., Risi, S. & Burton, C.(1999). Predicting dysphonia in adolescence from actual and perceived peer acceptance in childhoo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94-104.
- Lochman, J. E.(1992).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with aggressive boys: Three year follow-up and preventive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426-432.
- Lochman, J. E. & Dodge, K. A.(1994). Social-cognitive processes of severely violent, moderately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366-374.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 Newcomb, A. F., Bukowski, W. M. & Pattee, L.(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 99-128.
- Panak, W. F. & Garber, J.(1992). Role of aggression, rejection, and attributions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in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45-165.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135-1349.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Sandstrom, M. J. & Coie, J. D.(199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peer rejection: Mechanism of stability and change. *Child Development*, 70, 955-966.
- Schwartz, D., Farver, J., Chang, L. & Lee-Shin, Y.(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113-125.
- Schuster, B.(1999). Outsiders at school: The prevalence of bullying and its relation with social statu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 175-190.
- Zakriski, A. L. & Coie, J. D.(1996). A comparison of aggressive-rejected children's interpretations of self-directed and other-directed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7, 1048-1070.